

# 맞춤형 컨설팅으로 교육행정 역량 강화

### 전북교육청, '학교 교육행정 컨설팅' 운영... 신청학교로 직접 찾아가 신규 공무원 1대1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교운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 학교 교육행정 컨설팅 운영 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 교육행정 컨설팅은 실무중심 방문 컨설팅과 소규모학교 행정실장 업무 공백 지원이 핵심이다.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은 발령 후 2개월 전후 최소 2일을 신규공무원

이 필요로 하는 현안 업무에 대해 1대 1로 컨설팅해주는 방식이다. 6급 1명과 7급 4명 총 5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신청학교로 직접 찾아가는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학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컨설팅 희망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행정실장 업무공백 지원은 소규모학교 행정실장의 1개월 이상 출산휴가나 장기 병가시 활용할 수 있다. 학교에서

교육청과 사전협의 후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학교회계 임시출납원 임명에 따라 업무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업무는 K-에듀파인 시스템 사용법을 비롯해 예산, 수입, 지출, 계약, 문서, 급여, 물품, 재산 등 학교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학교 행정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부담 경감 및 업무수행과정에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행정업무 길

라잡이 제작, 분산돼 있는 교육행정 정보를 한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 자료방 관리, 학생동아리 운영 등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실제 지난해 방문컨설팅 만족도는 98.5%, 행정실장 업무공백 지원 만족도는 100%였다"면서 "앞으로도 학교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의사 국가시험 '전국 수석'

### 전북대 송정민 학생, 320점 만점에 303점으로 수석 합격 교수님들 열정적 가르침·멘토링·실기시험 지원 등 큰 힘



전북대학교 송정민 학생(의과과)이 제86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르면 최근 시행된 제86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총 6,043명이 응시해 5,786명이 합격해 95.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송정민 학생은 이번 시험에서 320점 만점에 303점(94.7점/100점 환산 기준)으로 전체 응시자 중 가장 높은 점수로 합격했다.

송정민 학생은 "수석 합격의 영광은 의대 교수진의 열정적 가르침과 지속적인 멘토링 덕분에

에 서서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을 응원해주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북대가 CMS센터(의대)를 통해 실기시험에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북대는 학생과 지역사회 보건의료인들에게 질 높은 임상실습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송정민 학생은 "본과 2학년 때 교수님들과 함께 아프리카 케냐 해외의료봉사를 다녀왔는데 어떤 의사로 살아가길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소중한 기회를 갖게 해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실력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은 전북대 의대는 한국의료교육평가원이 주관한 의학교육평가 6년 인증을 획득하면서 의학교육 경쟁력을 입증했다.

또한 "시험 당일 추운 날씨에도 제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밖



# 전북대 학부생, 복합재료 열전도 높일 방안 찾아

### 남해는 학생, 연구 성과 SCI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 신소재 그래핀 평판 크게 확장시켜 복합재료 열 저항 감소

전북대학교 남해는 학생(유기소재첨가공학과 4년·지도교수 김성룡)이 그래핀의 평판 크기를 확장시켜 복합재료의 열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

남해는 학생은 이러한 연구 성과가 담긴 '그래핀 나노플레이트렛의 평판 사이즈 제어에 따른 복합 재료의 퍼콜레이션 거동과 그에 따른 열전도도 향상'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최근 SCI급 국제 저널인 'polymers'에 게재했다. 이 연구에는 장지은 박사과정생(한양대학교 유기나노공학과·지도교수 김성룡)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에 뜻을 두고 2학년 때부터 전북대 복합재료연구실에

서 학부 연구생으로 참여해 온 남해는 학생은 복합재료 내 열전도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인 계면 열 저항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연구에 매진해왔다. 특히 복합재료의 열 저항 감소를 위해 신소재인 '그래핀'에 주목했고, 여러 실험을 통해 그래핀의 평판 크기를 확장시킴으로써 열 저항을 감소시켜 복합재료의 열 전도도를 높일 수 있음을 규명해 냈다.

남해는 학생은 "2학년 겨울방학부터

시작한 학부 연구생 끝에 좋은 결과를 성취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지도교수님과 연구를 지원해 준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학부 연구생의 경험은 대학원 이전에 연구를 선행하며 지식뿐 아니라 개인적 가치관과 목표를 계획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로, 다른 학우들도 열린 마음으로 도전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룡 지도교수는 "학부연구생들을 지도하면서 대학 커리큘럼과 학과 전공을 충실히 이수하고 연구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면 전공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다"며 "2년 동안 학부와 연구실 생활을 병행하며 훌륭한 연구성과를 일궈낸 남해는 학생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미용건강과 우수기관 선정 현판식

전주비전대(총장 정상모)는 20일 비전관에서 미용건강과 과정평가형 국가자격과정(미용사·일반) 우수기관으로 선정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과정평가형 자격 우수과정 인증 선정 결과와 함께 기관은 전국에서 12개 기관 14개 과정이며, 이중 전주대학교는 3개 기관으로 전북에서는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가 유일하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선정 되고 있는데,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는 2017년도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연계하여 헤어미용 과정평가형 국가자격과정 운영 지정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 우석대 총학생회, "위기 극복·대학 발전에 힘 보태겠다"

### 상생발전 위한 공동협력 다짐

우석대 총학생회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대학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제38대 총학생회와 대학 본부는 20일 TFT를 구성하고 ▲유학생 관리 체계화 ▲입시홍보활동 지원 ▲코로나19 공동 대응 ▲학생복지 등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TFT는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학량연구 감소에 따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과 소통을 거쳐 추진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학생 자치기구인 총학생회가 대학의 지속 발전을 위해 팔소매를 걷어붙인 사례는 전국적으로 드물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양현규 총학생회장(유봉통상학부 3년)은 "최근 대학의 생존이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우리 총학생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고 있는 대학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학발전과 지역사회 한 축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병원, 뉴스위크지 선정 '세계 최고 병원'에 포함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뉴스위크가 선정한 '2022년 전문 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에 이름을 올렸다.

20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2022년 전문 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내분비 분야와 소아과 분야의 세계 최고 병원으로 선정됐다.

분야별 순위로는 내분비 분야에서는 전 세계 126개 병원 중 49위를 차지했으며, 소아과 분야는 전 세계 156개 병원 중 108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순위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20개 국의 의사 보건전문가, 병원관리자 등 의료조사자 4만여 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분야별 순위는 의사, 보건 전문가, 병원 관리자 등 의료 종사자들의 추천점수(70%)와 평가를 위해 구성된 의료 전문가 그룹의 순위점수(30%)를 기반으로 정해졌다.

유희철 병원장은 "뉴스위크지의 세계 최고 전문병원 선정은 우리 병원의 의료 수준이 세계 유수 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전문 분야별로 체계적인 연구와 진료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중심의 의료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교육 실현 최선"

###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대한민국 청렴대상 수상

### 총장 시절 계약분야 청렴도 전국 1위 등 인정



대한민국 청렴대상 시상식이 20일 서울 매천로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نی유인 총재가 서거석 전 전북대총장에게 교육부문 청렴대상을 전달하고 있다.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회 수석부회장 겸 전북후원회장을 역임하면서 취약계층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보살폈다는 점도 공적으로 인정됐다.

서 전 총장은 "청렴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전북교육 대전환의 밑거름"이라며 "오늘 청렴대상 수상은 앞으로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교육 실현을 위한 도민과 국민

의 명령으로 알고 아이들을 중심에 둔 미래가 보이는 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민간단체로 허가받은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지역발전, 인권, 정의사회 구축, 부정부패 추방 등을 위한 청렴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LINC 3.0사업 설명회 개최

전주대학교는 20일 온누리홀에서 사업참여 희망학과 100여 명을 대상으로 LINC 3.0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INC 3.0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6년 동안 매년 40억원(수요 맞춤형성장정책 기준)씩 지원하는 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전주대는 지난 5년여 동안 사회맞

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학협력 우수대학으로서 선정됐다. 특히 드론, 융합 전공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인재 양성 분야에서 전국적인 우수 혁신모델을 구축해왔다.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LINC 3.0사업에 대한 설명과 사업참여 희망학과별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와 의견수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성 기자

# "학생인권 넘어 학교인권으로"

### 황호진 전 부교육감, '통합적 학교인권 강화 제시'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이 20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교인권 강화 정책안을 발표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타 시도보다 우리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설립으로 학생인권이 많이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의 인권은 아직도 요원하다"며 "이제 학생인권을 넘어 학교인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교육청의 인권우호적 학교문화 조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 서도 개별 학교안에서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자체 해결능력 부족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과도한 권리 우월주의 등 새로운 전북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학교인권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학교인권교육센터로 발전 ▲교사·학생·직원인권 함께 보장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교급별 맞춤형 인권교육·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강화 등 전북 학교인권 강화를 위한 4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기울어진 학생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존재와 역할이 분명해진다. 이제 학생인권을 넘어 교사인권, 직원인권까지 포괄하는 학교인권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학생인권보호에서 교직원인권 보호까지 통합적인 학교인권 강화의 컨트론타워 역할로 학교인권교육센터가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황 전 부교육감은 "지난 12년 전북교육청의 학교인권 성과를 이어가겠다"며,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 사람 중심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은성 기자